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9월호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호리 순로(堀 俊郎)

8월은 올림픽의 명승부를 보며 매일이 흥분의 나날이었으며 지난 오이타에서 열린 영국 럭비 학교와 오이타 마이즈루고교의 교류 시합도 접전을 보였습니다. 한편, 9월 1일부터 일본, 한국, 홍콩, 카자흐스탄의 펜싱 대표팀이 히타시에서 합동 강화 합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도 오이타의 국제교류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오이타현 주목 기사>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오이타현인교류 응원단

남아메리카 첫 개최지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오이타현인교류가 있었습니다. 오이타현에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는 2명. 여자 유도 78kg급에 나온 우메키 마미 선수를 응원하기 위하여 고코노에정의 가족 및 사카모토정(町)장 등 11명의 응원단이 파견되었고, 브라질 오이타현인회의 전 회장으로 고코노에정 출신이었던 친척이기도 한 나가마츠씨가 마중나왔습니다. 나가마츠씨는 코티아 청년으로 이주하여 50여년 간 상파울로에 거주 중이나, 응원단이 온다고 하여 반년 전부터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첫 시합에서 패배하는 아쉬운 결과를 남겼으나 아직 젊기에 다음 도쿄 올림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오이타 현인회]



▲ 제12회 오이타아시아조각전의 모습

제13회 오이타아시아조각전 개최

<안내> 10월 8일 (토) ~ 11월 27일 (일) 아사쿠라 후미오 기념문화 홀

분고오노시 출신 조각가 아사쿠라 후미오를 기리며 아시아의 젊은 조각가의 발굴과 육성을 목적으로 1992년도부터 개최된 오이타아시아조각전이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합니다. 올해는 15개국에서 411작품의 응모가 있었으며, 대상 1점, 우수상 6점의 수상작품을 포함한 입선작품 30점이 전시됩니다. 이 밖에도 개최기간 중 주말을 중심으로 아사쿠라 후미오 기념문화 홀 등에서 워크숍 및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아사쿠라 후미오의 고향, 분고오노시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함께 아시아 각지의 젊은 조각가들의 에너지 넘치는 현대 조각작품을 꼭 감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문화진흥과]

아시아 최대급 식품견본시 FOOD EXPO 2016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홍콩 ‘FOOD EXPO 2016’에 오이타현 부스를 설치하여, 조미료와 과자, 음료,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현내 기업 6사가 참가하였습니다. 매년 이 시기에 개최되는 ‘FOOD EXPO’는 세계 각국의 약 2만 명의 바이어들이 방문하는 아시아 최대급의 국제종합식품견본시로 불리웁니다. 해외의 현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향의 맛을 현지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안심·안전 오이타현산식품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이와 같은 활동을 지속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업·서비스업진흥과]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9월호

오이타 100% 즐기기! 벳푸 스키노이호텔 아쿠아비트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있는 벳푸의 스키노이 호텔은 벳푸 팔당 중 하나인 간카이지 온천 고지대에 있는 대형 리조트 호텔로, 수용객 수도 벳푸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높은 지형을 살려 만든 계단식 노천 온천인 타나유는 벳푸만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어 인기가 높는데 이 온천 뿐 아니라 수영장, 볼링장, 오락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숙박객이 아닌 당일치기 방문자들도 입장료를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온천보다 시원한 물놀이가 간절해지는 어느 더운 여름 날, 스키노이 호텔의 부대시설 중 하나인 실내 풀장 아쿠아비트에 다녀왔습니다. 아쿠아비트는 날씨가 자외선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실내 워터파크 시설로 여름기간 한정으로 오픈되는 곳입니다. 이번 방문이 작년에 이은 두번째 방문이었는데 올해는 리뉴얼되어 새롭게 오픈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은 호텔만큼 풀장의 온도는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온수풀이었습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기대했다면 아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 온도로 오랫동안 물 속에서 놀기 좋았습니다.

인공파도 풀장인 아쿠아비치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약 15분동안 파도가 나오는데, 새롭게 리뉴얼되며 더 높아진 파도를 즐기기 위해 튜브를 타고 모여드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이번 리뉴얼로 4종류의 워터슬라이더에도 별자리와 무지개 버전이 추가되어 슬라이더를 타면서 타는 재미에, 보는 재미까지 더해졌습니다. 풀장 규모에 비해 많은 놀이시설로 사람들이 분산되어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아 바로바로 탈 수 있습니다. 또 야외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정글집이 새롭게 생겨 기존에 있던 실내의 키즈존을 포함하여,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야외에는 스파시설도 있어 워터파크에 갖춰져 있어야 할 요소는 다 갖춰져 있어서 남녀노소 골고루 즐기기 좋은 워터파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 중 인상깊었던 것은 휴식 공간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슬라이드 타는 곳과 탈의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전에는 없었던 의자와 해먹 등이 생기고 비치 의자도 마련되어 물놀이를 즐기다 지치면 잠시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영업기간

2016년 7월 9일 ~ 9월 30일 (예정)

영업시간

9:00~19:00 (입장마감 18:30)

입장료

기간 별로 상이하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람

가는 방법

벳푸역 서쪽 출구에서 15분 또는 30분 간격으로 셔틀 버스 운행

※ 수영장 및 튜브 대여 가능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9월호

비콘플라자 글로벌타워 & 벳푸공원

벳푸를 지나다닐 때마다 저 건물은 무엇일까? 하고 늘 궁금했었는데, 전망대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슬림한 외관에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곳인지 호기심이 생겨 한번 방문해보았습니다.

높이 125m의 글로벌 타워는 공연 및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다목적 건물인 비콘플라자의 심볼 타워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비콘플라자의 뒤편으로 올라가 글로벌 타워 입구에서 입장권을 끊으면 동근 기둥에 숨어있는 엘리베이터로 안내받아 이동하게됩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m 상공에 올라가면 360도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있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푸르른 산과 벳푸만,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온천 증기가 눈앞에 펼쳐지며 기대 이상의 전망을 자랑합니다.

‘일본야경유산’으로도 인정받은 글로벌타워는 밤에 방문하면 벳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망대는 3층과 4층으로 구분되며, 3층에서 4층까지는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돌출되어 있는 이 계단은 양측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 마치 공중계단을 오르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 오직 글로벌전망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장료는 300엔이지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권을 다운받아 200엔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비콘플라자의 글로벌타워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나무가 울창한 공원이 있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벳푸역 방향으로 가는 길에 들른 벳푸 공원은 간간이 운동하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 매우 조용하고 한가로운 분위기의 공원이었습니다.

벳푸공원의 동쪽 입구에는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길쭉하게 뻗어있는 대나무들을 보고있노라니 가슴 속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이지만, 마치 한국의 담양 죽녹원을 연상케했으며,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벳푸공원은 봄에 튜립과 벳꽃으로 화사하게 물들어, 꽃들이 만개하는 시기에는 꽃구경을 하는 사람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다음 번에는 봄에도 방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키가 큰 나무들 덕에 오히려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해질녘 평화로운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왔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길게 느껴지네요. 오이타도 연일 최고기온 35도를 기록하고 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장소는 온천으로 유명한 벳푸였는데, 온천을 즐기지 않아도, 또 더운 여름이어도 즐길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국제교류원 김진아